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진현



근래 광주와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설치작가 S씨(42)는 한 때 신용불량자였다.

는 여기저기서 거금 4천여만원을 변통해 전시관 천장에 270개의 자전거를 매단 작품을 설치했다.

‘그들만의 잔치’ 이제 끝내자

못한 암초를 만난 그는 살인적인 대출금 이자를 막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자초했다. 이후 대출금과 이자를 갚느라 수년간 본인업 창작은 뒷전인 채 막노동관을 전전해야했다.

인재양성에 소홀한 비엔날레

하지만 그는 재단으로부터 “비엔날레 호(號)에 승선한 것만으로 더할 수 없는 ‘영광’ 일 터이니 작품 제작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광주 비엔날레가 총감독 개인의 국제적 사교를 위한 파티, ‘재주는 곰이 낚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들의 축제’로 거듭 나아가

‘2006 광주비엔날레’(9월8~11월11일) 개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틀리는 바에 의하면 제작비 지원을 둘러싼 일부 작가들과의 계약이 난항을 겪는데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수석 프로그래머가 중도 하차 하는 등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문화도시의 핵심인프라로서 작가와 인재양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재단의 안일함이다. 비엔날레가 폐막되면 전시팀원들의 계약만료와 함께(비엔날레를 매개로 한)국제 인맥과 노하우도 동시에 소멸된다.

광주 비엔날레가 문화수도 광주를 견인해갈 중추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우리들의 축제’로 거듭나려면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책무에 눈을 돌려야 한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시설

높은 투표율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한다

오늘은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살림을 맡을 일꾼들과 민의를 대변할 지방의원들을 뽑는 날이다. 국가는 오늘을 임시공휴일로까지 정하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투표를 돕고 있다.

거를 자치일꾼을 뽑는 선거로 보지 않고 일찌기 자기편 사람들을 장관직에 기용했다가 선거판에 ‘투하’시키는 등 중앙정치의 세력싸움으로 판을 이끌었다.

이래선 안된다.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선거를 통해 뽑힌 풀뿌리 일꾼들의 대표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당선자들로 하여금 주민경시풍조에 빠지게 만든다.

우리는 유권자들이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 의원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공천제가 부활, 적용된다 사상 처음으로 유급제가 적용되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챙겨보는 성의를 가져야 한다.

김재철 여수엑스포 유치위원장에 기대한다

여수 세계박람회 민간 중앙유치위원회가 어제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미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김재철 유치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 지역 강진 출신인 김 위원장은 변변한 어선 한 척 없었던 국내 원양업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켰으며 최근까지 무역협회장을 맡아 세계시장 개척의 주역으로 활동해 왔다.

민간 중앙유치위원회 구성으로 2012 여수엑스포 유치 활동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미 3개월전에 구성된 정부유치위원회에 비해 민간중앙유치유치 유망이 늦어지면서 득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수 엑스포 유치 경쟁은 이제부터다. 내년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심사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02년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교통·관광 인프라는 미흡할 수준이다.

기고

김형숙



HHA) 발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2년 가까이 금연상담사로써 흡연자들을 상담하며 금연하는 사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등 다양한 모습을 많이 접했다.

손목씨는 매일 저녁 담배를 피우기 위해 억지운동을 시작했다. 늦게 퇴근하여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음식을 쓰레기를 들고 나가 아내의 눈을 피해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

금연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실패자들의 모습을 예로 든건 실패자가 성공자보다 많고, 지금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는 독자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5·31은 선거도, 금연도 하는 날

해 담배를 끊겠다고 한다.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마는 게 요즘 현실이다. 그러나 명예와 부를 만끽할 만큼 이뤄 놓은 뒤 ‘건강’을 잃어버리다면 평생 노력의 끝자락 되고 만다.

5월 31일은 지방선거일이면서 세계 보건기구(WHO)가 ‘연기 없는 사회(Smoke free society)’조성을 목표로 지정된 ‘세계 금연의 날’이다. 5월 31일부터 그동안 미뤘었던 금연을 시작해보자! 아직 2006년은 7개월이 남아있으므로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안전한 도로 교통문화 주민 스스로 확립할 때

국민소득 2만달러를 바라보는 경제성장이 말해주듯 한국의 조선, 전자, 통신, 자동차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으며 국가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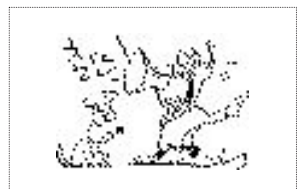
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통문화의 현실인 것이다. 교통문화는 우리의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문화가 무질서하고 혼란하다면 외부인들이 보았을 때 사회를 삶의 질이 높은 사회라고 할수 있을까. 나라의 살림을 키우는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다.

無等鼓

최근 미국에서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3대가 한 집에 모여사는 대가족 붐이 일고 있다는 외신이 눈길을 끈다. 한 지방에서 3대 이상이 사는 가구가 4 미 통계청 마지막 센서스가 실시된 지난 2000년 420만 가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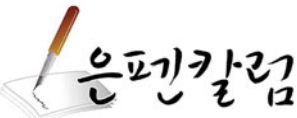
7월 2005년 4월 11일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독립신문·배달안내 www.kwangju.co.kr

美的 대가족 붐



대가족 증가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우선 꼽힌다. 집값이 급등해 임차료나 구입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 집을 찾게 된다. 집값이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캘리포니아주에 대가족 가구가 많은 점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57명에 크게 못 미치는다. 교보문고가 최근 낸 ‘UN 미래보고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선랄하게 보여준다. 4천600만에 이르는 현 인구는 2050년 3천만명, 200년후에는 500만명 그리고 2800년에 마지막 한 사람이 숨을 거두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예측이다.



박홍근



월드컵 시즌이다. 인문마다, 거리가 다 붉은 물결로 가득하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를 생각해 본다. 명장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에서 단, 1 승조차 없었던 대한민국 팀을 4강에 올려놓은 기적 같은 일을 일구어낸 주인공이다.

십은 그 도시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외국과 지난 12년간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인구 400만명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작은 도시로 일컫게 세웠고, 세이크 모하메드 두바이 국왕은 인구 130만명에 국토면적은 서울시 보다 적은 도시를 중동경제의 허브로 자리를 굳히게 하고 있다.

리더십과 도시경쟁력

수들과 공통된 가치를 공유한 것이다. 또한 선진 축구의 본 고장인 유럽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선 기술을 도입, 적극적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여 한국축구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축구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찌 보면 뿔은골이다. 감독(단체장)이 있고 팀(행정조직), 선수(공무원), 전술과 전략(운영전략) 등이 필요하다.

브라질 파라나 주의 꾸리찌바시는 자이메르 레르네르 시장의 창조적 리더십에 의해 1950년대 이후 무질서한 난개발이 지속되던 꾸리찌바를 ‘지구상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탈바꿈 시켰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지역 발전의 중심역할과 촉매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좌우한다. 따라서 어떤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선출될 것인가는 지자체 주민에게 최대의 관심사다. 정치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패가, 경제·사회적으로는 도시의 변명과 인간다운 삶의 지속 여부가 단체장의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젠, 우리 도시의 경쟁력은 단체장의 리더십만큼 큰다는 사실을 서로 기억해야겠다. <포유건축사사무소 건축사·2004년 12월 수상자>

은펜칼립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제2외국어 확대, 국가경쟁력 약화 부른다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97년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다며 제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제2외국어에 아랍어 등을 추가했지만 학생선택에 따라 개설되는 제2외국어는 일본어와 중국어에 집중됐다. 그러나보니 현재 고등학교에서 독이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러시아어와 아랍어가 단일교과목으로 개설된 곳은 아예 없다고 한다. 영어에 치중하면서 제2외국어에 소홀히 한다면 국가경쟁력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론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including name (光州日報), address (501-711), phone numbers, and website (www.kwangju.co.kr).